

金 淑 賢 戲 曲 集

외 줄 위 의 扮 裝 師



한겨레 회극선집 ①  
1978. 10. 15일 발행

序 文

金淑賢여사는 작고한 柳致眞 先生의 推薦에 의하여 現代文學 雜誌를 통해 文壇에 나왔다. 내가 敎職을 갖고 있는 東國大學 演劇映畫科를 나왔기 때문에 재한시절 부터의 그의 創作的 熱意를 나는 잘 알고 있다. 내 말에는 아직도 學生 제의 그레 처럼 어리케만 보이는데 어느 사이에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되고 4・5名밖에 안되는 이 나라의 單란한 女流劇作家가 되었다.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
金淑賢여사의 戯曲은 女性들의 心理케드한 心理가 곧잘 파악되어 있으며 家庭과 社會와의 사이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苦悶 같은 것이 鮮 然 表現되어져 있다. 女流劇作家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是 情을 苦悶해 보민 이 것은 金淑賢여사의 作家의 特性의 一部가 아닐까 싶다. 우리나라에서는 劇作家의 수도 적지만 더우기 女流劇作家는 매우 드물다. 金여사가 지니고 있는 그 作家의 特性과 結果시켜 생각해 볼 때 金여사가 開拓해 나아갈 領域은 아주 또렷해 보인다. 그러나 金여사의 文學的 欲望은 그러한 世界에만 머물지 않은 보다 더 深化되고 擴大된 人間의 드

라마 일 것이다. 年富力強한 金여사는 自身의 特性과 그 欲望을 歲月과 함께 더욱 더 發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이 作品集은 그러한 布石의 좋은 完結實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.

一九七八年 六月 趙 演 鉉

目次

男女 3 아장 ..... 7

외출 위의 扮裝師 ..... 35

魏이라드 빼 드리조 ..... 67

漂流民 ..... 91

결 ..... 141

그믐밤을 물이셔 ..... 161

빛진 자들 ..... 179

경은 켈리스트 ..... 199

5년 후 ..... 211

참견 좀 해 주 ..... 225

殘影 ..... 243

바벨탑 무너지다 ..... 265

後記 ..... 309

한겨레 회귀 선집 ㉑

외출 위의 扮裝師

값 1,800원

1인  
15인  
인쇄  
발행

著 者 金 淑 賢  
主 幹 申 世 武  
發行人 金 永 武

發行所 韓 겨 테 出 版 社

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73-10

TEL. 712-6240

등록번호 · 제 9-91호('78.1.25)

업무연락: 서울 중구 장교동 22-15자생빌딩 302호 (267-8086)

發 者 연락처 793-0089



一九七八年 八月 韓 겨 테 出 版 社 發 賢

이밖에 「외출 위의 扮裝師(외출 위의 行進)」 「魏이라도 빼 드려 조 등도 취재 과정에서 애를 먹은 작품이고」 「경은 켈리 스트는 켈리 스트를 만나 보려고苦心하던 중 우연한 일로 해서 劇的인 해후를 하게 된 에피소드로 해서 기억에 남는다. 오늘이 있기까지 키워주신 故 柳致眞선생님, 現代文學社 趙滄鉉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신뎃출판을 맡아 주신 한겨레 출판사 사장이며 劇作 同門인 金永茂선생, 그리고 견해를 맡아 주신 東國大學 校 金興雨선생께 깊은 謝意를 표한다.